

북핵과 안보문제, 박용옥 전 차관으로부터 듣는다

인터뷰 박용옥 (前 국방부 차관) | 인터뷰어 김승욱 (월드뷰 발행인)

이번 호에서는 제30대 국방부 차관을 역임한 국군중앙교회의 박용옥(朴庸玉) 장로를 소개합니다. 육사21기로 육군 중장 출신인 박 장로는 국방부 군비 통제관과 주미대사관 국방무관을 거쳐 국방정책실장을 역임했고, 1990~1992 기간 중 8차례 걸친 남북고위급회담에 남측 군사대표로 참여했으며 전역 후 국방차관을 역임했습니다. 1942년에 평양에서 출생한 박 장로는 어린 시절에 평양 장대현교회 유치원과 유년 주일학교에 다녔으며, 마지막 공식으로는 이북5도청 평안남도 도지사를 역임했습니다. 박용원·박용옥·박용숙 3남매가 모두 경기고·경기여고를 졸업했으며, 형님인 박용원 장로도 육사18기(대령예편)이고 매부인 이준 장로(19기) 역시 국방부 장관(육군 대장)을 역임한 보기 드문 군인 가문입니다. 군 안팎에서는 정책·전략통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번 호에서는 현재의 북핵 위기 상황에서 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하는지 들어봤습니다(편집자 주).

김승욱: 오랜만에 뵙습니다. 연휴에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석이라 자제분들도 방문해 있는데 방해가 된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박용옥: 괜찮습니다. 저는 딸만 셋 있는데 위의 둘은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큰 딸 내외는 미국에서 살고 있고, 둘째 딸은 산호세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에 사는 막내 딸 내외만 왔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습니다.

김승욱: 이미 칼럼을 통해서 현재 북핵 위기와 관련되어서 견해를 표명해 주셨는데,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미간 말 폭탄

이 격화되는 가운데, 메티스 장관은 최후통첩성 경고를 보냈고, 김정은은 꺾 포위 사격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세간에서는 방독면과 전투식량이 불티나게 팔린다고 할 정도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옥: 6.25 이후 지금까지 한반도는 위기가 아니었던 때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전쟁 소문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국내외 국제정치 전문가나 외신 기자들 중에는 한반도에 어떤 악재나 호재가 생기면 드라마틱한 상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금방 전쟁 날 것 같다고들 하는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노선 발언과 김정은의

강경 대응 반응 때문에 전쟁으로 가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사실 전쟁은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은 그런 소문에 휘둘리지 말아야 하고, 그 대신 정부와 국방 당국은 만일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쟁은 피하는 자를 쫓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의 베게티우스도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고 했듯이, 진정한 평화주의자는 전쟁을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대비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자병법에 불가승재기(不可勝在己) 가승재적(可勝在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이 나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내가 취약점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고, 내가 적을 이기는 것은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적이 취약점을 보이기 때문이라는 의미입니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는 말하고도 통하지요. 북한은 걸핏하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전쟁만은 절대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전쟁 나면 항복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유약한 자세가 결국 전쟁을 부릅니다. 북한 말 들어주면 전쟁 안 일어난다면서, 북한 핵도 인정해 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어주면 핵 개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유화론을 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내부에서 이런 생각을 노출시키면, 북한이 볼 때 한국은 절대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반대로 만일 북한에서 포격을 하면 우리는 응징할 만한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 우리 국민과 군의 사기도 오르고 북한도 함부로 못 합니다. 한미연합방위태세의 공고성을 보이지 않고,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한미동맹도 깰 수 있다는 망언은 북한에 자신감만 키워 주는 이적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김승욱: 한국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안보 문제를 준비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은 해서는 안 된다는 평화론과 전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첫날 영화 “남한산성”이 역대 추석 흥행 한국영화 중 가장 높은 오프닝 스코어를 기록했는데, 이 영화에서 주화론자 최명길과 척화론자 김상헌의 대사가 오늘날 한국의 상황을 잘 말해준다고 해서 더욱 인기가 높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선제공격을 한다면 우리의 태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박용욱: 북한이 반세기 이상을 우리와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를 향해서 투쟁을 해왔지만, 바보가 아닌 이상 미국과 전쟁을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핵 능력이 경량화, 소형화되어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다고 평가되면 미국은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미국은 핵을 가진 중국이나 러시아와는 공존이 가능해도, 북한과는 공존이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북한이 그런 능력을 가지는 상황이 오기 전에 선제공격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미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그때 미 행정부의 판단에 달렸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옵션을 선택함에 있어서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국제사회에서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자신의 국가안보위기 상황에서 하는 행동을 우리가 하여라 말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군이나 주한미군을 사용한다면 한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미국은 북한 공격할 때 한미연합군을 이용할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한반도 밖에 있는 미국 전력 즉 괌, 일본, 태평양 등의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한국



정부에게 동의를 구할 이유도 없겠지요.

한국의 동의 없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수 없다는 주장은 많은 사람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믿고 싶겠지만, 아닙니다. 동의 없이 공격할 수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 당시에 미국이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공격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막아보려고, 외무부 장관을 수차례 미국에 보냈죠. 그 당시 저는 미국에 대사관 국방무관으로 있었습니다. 그때는 북한이 지금처럼 미국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었던 것도 아니고, 단지 영변의 핵개발 시설을 미리 없애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에 전쟁 나면 안된다고 하는 우리의 청을 들어주었던 것이

죠.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현재 미국이 받는 북한의 위협은 과거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선제공격은 전적으로 미국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핵무기로 위협할 정도로 ICBM을 발전시키면 미국은 북한에 대해 선제공격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의 선제공격을 막으려고 하기 보다는, 그때 북한이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에 주목해야 합니다. 남한에 대해 분풀이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마는, 아마 핵은 못 쓸 것입니다. 핵무기를 사용하면 미국이 정말 북한을 완전히 지구상에서 없애버릴 수 있는 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래식 군사공격은 가능합니다. 한국군은 그것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미국의 선제공격 이야기가 나올 때 우리 대통령은 그것은 미국이 결정할 사항이며, 만약 북한이 우리를 향해 도발하면 우리는 미국과 힘을 합해 단호히 응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 중국도 할 말 없습니다. 지금처럼 해서는 일본에게도 무시 당하고, 미국에게도 무시당합니다. 중국은 한국을 상대거리로도 안 삼는 것 같습니다. 이제 북한까지 우리를 무시하는 형국입니다. 아직도 핵위협 상황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김승욱: 평화나 방어를 위한 전쟁은 허용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마는 핵전쟁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핵위기 상황에서 기독교인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박용욱: 핵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핵무기도 전시에 제한적으로는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전술핵입니다. 따라서 핵전쟁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은 평화주의자도 아니고 현실적이지도 않습니다. 원자탄 이론을 제공한 미국의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영국의 철학자 버트란트 러셀과 함께 핵무기 폐기에 대한 선언(manifesto)을 했습니다. 앞으로 핵전쟁이 일어나면 인류가 공멸하므로, 소련이 정복하더라도 공멸보다는 더 낫기 때문에, 착한 미국이 핵무기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극단적 평화주의자들의 무책임한 논리입니다. 만약 그 주장대로 미국이 핵무기를 포기했으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전쟁만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은 전쟁할 바에야 북한에게 항복하는 것이 낫다는 논리와 같습니다.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해서 북한 김씨 족벌세습 정권도 끌어안아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역대하 18-19장에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왕을 방문해서, 일종의 남북정상회담을 가졌지요, 서로 같은 민족이라는 명분에서, 또 서로 사돈지간이기도 했지만, 여호사밧은 아합의 권고를 받아들여 힘을 합쳐서 이방 족속인 아람과 싸우는 데 동의합니다. 그 전투에서 아합왕은 전사하고 여호사밧 왕은 가까스로 예루살렘으로 도망쳐 돌아옵니다. 그때 선견자 예후가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라고 예언하며 비난합니다. 지금 남북한 상황과 비슷합니다. 북한의 김일성 족벌세습체제는 하나님을 가장 미워하는 정권입니다. 수백만의 백성들을 굶겨 죽이면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가장 악한 정권을 돕고 여호와를 가장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바람직 할까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동포는 도와야지요. 그러나 김씨 족벌세습 정권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김정은이 예수 믿고 장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를 빨리 없애 달라고 기도드리지요. 또 6.25 전쟁을 내전이라고 하는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유엔군의 참전은 북한의 기습적인 무력남침을 불법으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들도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하려면, 김정은 통치권자와 북한 동포를 구분해야 합니다. 북한 동포는 사랑해야 하지만, 김정은 폭압 정권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한국에 임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도 북한군 장성들과 군사회담을 많이 해 봤는데, 일상생활이

야기를 할 때는 동포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의 주범으로 알려진 지금의 통일전선부장인 김영철 대장이 당시 남북고위급회담 군사분과위원회 북측 위원장이었고 저는 남측 위원장이었지요. 서로 개인적으로 자녀나 가정 이야기하면 감정적으로 교류가 되는데, 일단 회담에 들어가서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관련된 이야기만 나오면 완전히 상종할 수 없는 딴 사람으로 변합니다. 북한 사람들에서 김일성주의 모자만 벗기면 우리와 같아 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남북한 간의 이질화는 큰 문제가 아니며, 김일성 종교만 없애면 한 민족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의 김씨 왕조가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 사회 내 중복세력도 안 없어지고 따라서 국론분열도 안 없어질 것입니다.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르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라는 말도 있지요. 북한 핵 위협을 못 느끼는 세계 유일한 나라도 한국입니다. 미국인들은 한국은 이상하다고 합니다. 북한 핵 위협을 그렇게 못 느끼느냐고 의아해 합니다. 일본이 방공호 들어가는 연습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반면에 한국은 너무 위협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승욱: 북한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북한이 모르지 않을텐데, 왜 이렇게 위험한 일을 계속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일부에서는 북한 내부용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용욱: 북한은 그들 나름대로 국가전략을 짜왔고, 어떤 면에서는 성공해 온 면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김일성이 북한 주민들에게 “지금 어렵지만, 객

관적, 주관적 여건이 점점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간다.”고 할 때 나는 김일성이 헛소리를 하는 것이고 자기 국민을 잘 속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김일성의 그 말이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핵 무기 개발도 최근에 갑자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북한은 6.25 전쟁 끝나고 바로 핵 무기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해외로 유학도 보내고 기초 원자료를 도입하고 지금까지 꾸준히 국가전략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 목적이 단순히 체제 내부용이라는 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북한의 장기적 국가 목표는 한반도 적화 통일입니다. 그들은 고려연방제 통일을 주장합니다. 김일성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체제가 다른데 어떻게 통일을 하느냐, 그러니 둘이 각각의 자기 체제를 유지하면서 연합하여 사는 연방제 밖에 없다. 서로 왕래하고, 각각 외교권도 갖는 통일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려연방제통일방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바로 적화통일이 됩니다. 고려연방제의 전제 조건은 주한미군 철수, 반공법 철폐, 남한 내 용공정부 수립, 이 세 가지입니다. 연방제는 가치와 체제가 다른 나라에서는 안 됩니다. 스위스나 미국도 연방제인데, 각 주가 가치관이나 체제가 같기 때문에 연방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북한이 이렇게 다른 상태에서는 연방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 남북한이 고려연방 체제에 들어가려면 위의 세 가지 전제 조건이 필수조건입니다. 북한은 반공법 철폐해서 용공 정권이 수립되면 남한은 북한의 밥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주한미군 철수도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미북 평화협정이 필요하겠지요. 평화협정을 맺었으니 이제 주한 미



오늘날 한국의 핵위기 상황에서
기독교인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군이 있을 이유가 없고, 따라서 철수하라고 주장할 수 있지요. 지금은 사장되었지만, 남북기본합의서가 일종의 평화협정 성격의 남북합의서입니다. 북한은 이제 미국과 북한 사이에 평화협정만 체결하면 한반도는 평화로운 곳이 되니까 미군이 주둔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이 원하는 세 가지 조건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반공법은 녹슨 칼이니 칼집에 넣어라. 그리고 전작권은 조기 환수하고, 연합사 해체하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북한은 지금 미국에 평화협정만 체결해 주면 핵 개발 안 하겠다고 주장합니다. 그 대신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해서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인정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마는, 미국이 지금 여기에 솔깃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미국 내에 이를 받아들이자는 의견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국제안보협력센터의 소장인 지그프리드 해커라는 핵 과학자도 이에 동의하면서 북한이 더 이상 실험하지 않으면 적어도 미 본토는 위협이 안 되니, 북한의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현 상황을 인정하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북한은 이런 조약에 들어갔다 나갔다가 마음대로 합니다. 핵 가진 나라는 핵 없는 나라 공격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지만, 안 지키면 그만입니다. 월남의 역사를 보면, 키신저와 평화협정 맺고 바로 월맹군이 무력으로 남부 베트남을 침공했습니다. 자기들에게 협조한 베트콩 등 수 많은 월남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바로 얼마 전의 역사적 경험이 있는데 이런 주장에 솔깃하면 안됩니다.

김승욱: 핵그림자(Nuclear shadow)를 막는 것이 무

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핵의 위협 앞에 국론이 분열되고 끌려가면 안되지요. 이에 대한 우리의 대책은 어떠해야 하나요?

박용욱: 북한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북한의 전력 중에 핵과 미사일, 화학무기 등 비대칭 무기가 위협적이지만, 우리 국민이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강력하게 단결하면 북한의 군사력을 훨씬 앞설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명박, 박근혜 두 보수 정권도 강군을 만드는 일에 소홀했습니다. 우리처럼 위기에 있으면서 국방비를 이렇게 적게 사용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요? 과거에는 GDP의 6%를 국방에 쓰다가 지금 2.5% 정도 밖에 안 씁니다. 미국의 군사안보 울타리 속에서 우리 자체의 방어 능력을 더 강화했으면 이 수모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한국에는 군사력을 강화시킬 힘이 있습니다. 북한 공격력도 있고, 비행기가 서울 상공에 떠서 북한 김정은 집무실을 때릴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힘을 키우지 않은 이유는 한미군사동맹이 있고 연합방위체제가 있으니깐 그것을 믿고 전력을 다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제라도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더라도 북한이 도발하면 우리는 단호히 응징하겠다는 의지만 대통령과 정치가들이 강력하게 표명하면 북한이 쉽게 못 덤벼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북한의 핵 위협 앞에 국론이 분열될 이 유도 없습니다.

김승욱: 얼마 전에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전시작전통제권 가져야 북(北)이 두려워할 것이고 국민은 군을 더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해서 북한 김씨 족벌세습 정권도 끌어안아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족벌세습체제는 하나님을 가장 미워하는 정권입니다. 수백만의 백성들을 굶겨 죽이면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가장 악한 정권을 돕고 여호와를 가장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동포는 도와야지요. 그러나 김씨 족벌세습 정권은 아닐 것입니다.





1992년 남북고위급회담 군사분과위원회 회의 후 남측 박용욱 위원장과 북측 김영철 위원장

박용욱: 저도 국방부 과장으로 있을 당시, 한때 한국군이 비무장지대 공동경비구역(JSA)을 맡으면 북한군이 긴장할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군은 미군처럼 유연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당시는 북한이 핵무기는 상상도 못하고 재래식 무기로도 별 볼일 없었으니 우리가 강하게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북한이 재래식 무기로는 전면전을 해서 한국을 이기지 못하겠지만, 핵무기나 화학무기, 또는 특수전 부대 등으로 한국에 얼마든지 큰 피해를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그 발언은 지금 남북한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이 첫 번째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군사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온 발언이라고 봅니다. 북한은 한국을 겁내지 않습니다. 미군을 겁내는 것입니다. 북한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데, 우리 군 통수권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요. 연합방위태세의 의미는 전시가 되면 연합사령관이 작전을 통제한다는 의미입니다. 평시 작전통제권은 이미 한국이 가지고 있으므로, 평시에는 우

리가 작전을 통제합니다. 그런데 전시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군으로만 싸우는 것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한미군 2만 8천이 전부 아닙니다. 일본의 후방기지의 군사전력, 미 제7함대, 미 7공군 등 어마어마한 미국의 군사력이 동원되고, 미국 인공위성의 정보세력이 바로 가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작전통제는 한국군 장성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국이 전쟁 발발 시 한미연합 군사작전을 통제합니까? 특히 전쟁이 장기화되면 탄약이나 유류 등 부족으로 한국군 전력으로는 더욱 불가능합니다. 만일 이런 것을 알면서 한 발언이라면, 세 번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즉, 알면서 한 발언이라면, 친북 노선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민노총 데모대가 미국 대사관을 포위해서 성조기를 태우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에는 보도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시다마는 미국 언론매체들은 전국적으로 이를 보도하여 미국인들의 감정을 해쳐서 반한감정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더욱이 이런 판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면 북한이 더 두려워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한국은 공산화되어 희망이 없으니 떼어버리라고 하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돌고 있다고 합니다. 한반도에서 전쟁 나서 한국 국민들이 배 타고 오면 받지 말자는 여론도 일고 있다고도 합니다. 일본에게 이렇게 백안시 당하는 것은 대일 외교가 실패했기 때문인데, 한국이 점점 외톨이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한국을 더욱 두려워할 것이라는 생각은 이해하기 어렵지요.

김승욱: 청와대는 2020년대 초반 전작권 환수 '3단

계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 본격 추진되어서 2012년에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연기되었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 무기 연기가 되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상당한 비용을 치르더라도 꼭 찾아와야 할 국가 주권이라고 했습니다. 제2의 창군 정신으로 이를 회수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박용욱: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강연도 했고, 지금도 유튜브에 전작권 환수에 대한 제 강의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에 대한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마는, 전시작전권을 국가 주권이라고 주장하는 중북 좌파 반미주의자들에게는 설득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전시작전권은 정말 주권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한미동맹도 미국이 싫다는 것을 이승만 대통령이 억지로 한 것이고, 한미연합방위 태세도 1968년 김신조 일당 사건 이후 창설된 것입니다. 유엔사령부와 병행해서 한미연합사령부가 만들어진 것이지요. 전시작전권 행사도 양국가의 통수권자 합의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에 한미연합사가 한국군의 전체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양국 합동참모본부에서 합의한 부대에 대해서 전시에만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시작전통제권은 주권침해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광주 5.18 당시에 미국이 오해를 받는 구실이 됐다고 럽스펠드 미 국방부 장관은 빨리 한국에 주라고 했을 정도입니다.

김승욱: 이런 위기 상황에서 군의 사기가 올라야 하는데 오히려 군의 사기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공관병 사태로 알려진 박찬주 대장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박찬주 대장의 공관병 사건이 무혐의 처리되자 뇌물로 엮어맸다는 이야기가 SNS 상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박용욱: 박찬주 장군은 우리 국군중앙교회 교인이었고 아주 깨끗한 군인으로 알려진 장군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청와대가 군 인사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잘못으로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청와대가 군 인사에 깊이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군 참모총장이 국방장관에게 싸인 받고, 보고하면 끝이었지요. 물론 대통령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는 관여할 수 있겠지요. 그것은 어느 조직이든 인간이 사는 곳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노무현 정부 부터 청와대에서 군 인사에 직접 간섭하기 시작했고 이런 나쁜 관행이 그 후로도 이어져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뿐만 아니라 국방부 장관도 군 인사 문제는 참모총장들에게 맡기고 정치가 군대를 좌지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대신 군인사에 부정이나 비리가 발견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차없이 단호히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군인도 정치와 관계없이 국방에 전념해야 나라 안보가 튼튼해집니다.

김승욱: 중국이 사드설치를 핑계로 한국 때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힘을 앞세워 '한국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 것은 역사적 필연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용욱: 중국 대처는 군사력으로 대처할 수 없습

니다. 경제적으로도 안 됩니다. 중국은 우리의 원칙과 기본입장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사드 배치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물쭈물하면서 우리의 확고한 입장을 천명하지 못했습니다. 사드 배치의 경우는 참으로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에게는 사드 배치를 결정한 바가 없다고 하다가 박근혜 정부 막판에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하니까,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당시 자기가 대통령 되면 재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성주에서 주민들이 반발하면 국가기관에서 위수령을 내리던가 엄격하게 대처해야 하는데, 자꾸 미적대기만 했지요. 중국에게도 북한 핵 때문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하면서 한미일 공조를 강화했어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정치리더십 문제이고, 전적으로 우리 책임입니다. 중국을 비난할 것도 없다고 봅니다.

김승욱: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탈원전을 선언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핵농축재처리를 포기했는데, 이제 탈원전 정책은 경제, 환경적 문제뿐만 아니라 전술적 차원에서도 매우 부적절한 정책이라는 주장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박용욱: 원자력 기술과 안전도는 한국이 세계 1급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원자력 기술자만도 수천 명이 있는데, 탈원전 정책을 실시하면 4천 명이 일자리를 잃는다고 합니다. 원자력 기술 자체가 핵개발 잠재력을 가지는 것인데, 이를 포기하는 것은 현명치 못한 일이지요. 이것이 비핵정책에 일치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틀린 생각입니다. 비핵조치가 핵의 평화적 이용을 막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핵을 군사적으로 이용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핵개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비록 핵무기는 없어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만들 수 있다는 일본의 위상과 그 가능성이 없는 나라의 위상은 국제사회에서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큼니다. 그런데 그간 우리 정부는 그것을 포기하겠다는 것이었지요. 왜 원자력발전을 꼭 포기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혁신적인 이미지를 부상시키고, 평화 이미지를 높이려는 의도인 것 같은데, 이는 먼 장래는 모르겠다는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장기적인 시각이 없는 것이죠. 장기계획을 세워도 다음 정부가 다 뒤집어버리면 더욱 어렵습니다. 원전은 한번 손실되면, 복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핵전문가들이 다 해외로 흩어지고, 그러고 나면 다시 시작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번 탈원전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 재개를 6대 4로 의결하여 이를 정부에 권고하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지게 된 것은 국내외 전문가들의 과학기술적 판단과 국민 대다수의 보편적, 합리적 사고의 승리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승리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 믿으며, 앞으로도 한국 교회와 전기독인이 한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회개와 기도에 힘쓰면, 오늘의 국가위기는 반드시 순식간에라도 사라지리라 믿습니다.

김승욱: 연휴 기간에 장시간 좋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